

제국의 아이돌: 최승희, 리상란, 레니 리펜슈탈, 마를레네 디트리히를 중심으로

이혜진(세명대)

1. 역사와 기억의 투쟁: 애도의 불/가능성

지난 20-30년간 한국은 과거의 기억을 둘러싼 총체적인 문제들에 몰두해온 것 같다. 18년간 편찬 작업 끝에 발간된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2009)은 그 동안 논란만 거듭해왔던 친일 문제를 일단락 짓는 데 기여했다. 또한 해방 이후 줄곧 일본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음에도 최근에 들어와 위안부 문제가 첨예한 역사적 사안으로 인구에 회자되기 시작했으며, 영화 <국제시장>(2014)으로 촉발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역사적 파급력이 대중의 기억을 단번에 호출해내자 식민지와 전후를 둘러싼 문제들이 대중의 기억에 침투하게 된 것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처럼 사라져가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과 그에 대한 기억이 최근에 구체적인 장면을 매개로 하면서 대중에 침투·확산된 원인은 그 동안 축적된 학문적 성과도 한 몫을 했을 것이다. 여기에는 근대성의 이면에 은폐된 권력관계를 해부함으로써 성(性)이나 여성사와 같은 미시사를 새로운 연구영역으로 개척한 푸코와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민족 문제의 비밀을 파헤친 앤더슨의 논의에 힘입은 바 크다. 이와 함께 정치적으로 상징화된 민족의 기억과 수 세기에 걸쳐 그 기억을 보존하고 또 지형도를 재구성하는 행위를 통해 뚜렷한 표상으로 남게 된 물질적·비물질적 장소를 '기억의 장소(Sites of Memory)'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한 피에르 노라(Pierre Nora)의 문제 의식을 여기에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피에르 노라는 역사와 기억을 정반대의 개념으로 대치시키면서 국기나 기념일, 건축물, 박물관, 노래, 행사, 도로명, 각종 기념동상 등 방대한 범위를 포괄하는 이 '기억의 장소'를 낱낱이 해부해감으로써 과거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갖는 근거가 바로 '현재'라는 사실을 폭로했다. 피에르 노라에 의하면 이것은 '역사의 가속화'와 '역사의 민주화'가 가져온 결과다. 즉 재빨리 사라져가는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가져온 초래한 급격한 동요는 과거-현재-미래라는 역사적 시간의 통일성 모형을 붕괴시켰고, 이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미래가 우리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증명해줄 수 있는 모든 흔적들을 긁어모아야 할 '기억의 의무'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끊임없이 과거를 복원함으로써 정체성 회복을 갈망하는 성적, 인종적, 종교적, 지역적 소수자들이 제출한 온갖 기억들은 '내·외부적 탈식민화'와 함께 '이데올로기적 탈식민화'를 초래했고, 그 결과 역사와 기억 사이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전복되었다 것이다. 요컨대 역사와 다른 층위에서 '집단기억(memoire collective)'이 부각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¹

¹

이 글은 이러한 방법론들을 원용하면서 내셔널리즘과 젠더의 문제, 특히 2차 대전 중 제국 은막의 스타들이 어떻게 국가 이데올로기와 교착하면서 내셔널리즘 미학을 구성했는지, 그리고 전후 국제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발생한 이들의 급격한 위상 변화는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지를 살펴봄으로써 당시 은막 스타들의 프로파간다에 대한 후대의 기억을 현재의 시공간에 복원함으로써 역사적 연속성을 재구성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에는 제국 은막의 여성 스타들이 경험한 제국의 문화권력과 국가 이데올로기, 그리고 그것을 전유한 집단기억이 중층적으로 혼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의 예술과 정치 혹은 국가권력과 대중문화의 공모관계에는 자기 존재의 기반이 되었던 이들의 예술행위가 자기모순을 초래하는 역설을 가져왔으며, 그 과정에는 제국주의-식민주의, 젠더, 인종, 민족 등을 둘러싼 기억의 문제들이 뒤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여기에서는 특히 조선인이었으나 ‘대동아(大東亞)’의 무희로 살았던 최승희(崔承禧: 1911-1969), 그리고 본래는 일본인이었지만 중국인으로 행세하면서 만주국 협화 이데올로기의 프로파간다를 최고도로 수행했던 리상란(李香蘭: 1920-2014)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의 문화권력이 전후 일본의 질서 재편의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레토릭을 통해 변모해 갔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나치의 핀업걸(Pin-up Girl)’로 자주 회자되곤 하지만 나치당에 정식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범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나면서 일생동안 끊이지 않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독일의 영화감독 레니 리펜슈탈(Leni Riefenstahl: 1902-2003), 그리고 독일 출신의 여배우였지만 히틀러의 제3제국을 피해 미국 할리우드 최고의 섹시심벌로 등극했던 마를레네 디트리히(Marlene Dietrich: 1901-1992)를 중심적인 소재로 삼으면서 전쟁 중의 제국주의 문화 헤게모니가 전후에 새롭게 재편된 정치적 레토릭을 통해 집단기억으로 재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네 명의 인물들은 일본과 독일 제국주의에 내재된 유토피아에 대한 잠재적 환상을 기반으로 한 프로파간다를 수행함으로써 당시 여성으로서의 최고 지위를 누렸으나 패전 이후 새로운 국가 질서 재편에 따라 그 지위를 완전히 박탈당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전전-전후의 일본과 독일에서 목도되는 이들의 급격한 지위 변화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 그 시대가 조작한 신화와 집단기억이 현재에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런 점에서 이 네 인물의 사례에는 전전과 전후를 연결하는 제국주의-냉전-국민국가의 세계 질서 재편 과정에 대한 알레고리의 리얼리티를 목도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특히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글로벌화가 욕망하는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감정적 적대국을 향해 근본적인 ‘과거 극복’을 상호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끌고 있다. 즉 세계 자본의 무제한적 폭주를 의미하는 신자유주의는 역설적으로 도의적인 사죄와 인륜적 배상을 비롯한 진정한 전후 책임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만든 것이다. 이것은 전후 배타적 민족주의에 의거한 국민국

*이 논문은 <국제어문>제 74집에 수록된 내용이며, 보다 확대된 내용은 2019년 상반기에 휴머니스트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¹ 피에르 노라, 『L'avenement mondial de la memoire』, 『프랑스사연구』, 제14호, 2006. 2, 177-179쪽.

가를 형성해왔던 전 세계 역사의 흐름이 새로운 경제블록 패러다임으로 전환함에 따라 자신들의 한계를 스스로 뛰어넘을 수밖에 없게 된 사정, 즉 교묘한 경제적 욕망의 필요성이 불러온 역설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일본과 독일의 전전-전후 책임의 과정에서 목도되는 집단기억의 차이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를 숙고하는 작업은 현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국가와 민족, 그리고 정치와 사회를 재고하는 세계적 계기를 포착함으로써 역사적 전환기에 직면한 일상세계, 국민국가, 지구 질서를 횡단하고 그 층위를 결합하는 새로운 정치의 재발명이라는 과업에 착수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전쟁, 여성, 프로파간다

주지하다시피 2차 대전 중 동맹을 맺은 추축국 일본과 독일은 군국주의 파시즘 체제를 통해 주변 국가들을 정치적·영토적으로 침략했고, 또 1945년 연합군에 일제히 패배함에 따라 ‘평화국가’를 표방하면서 전범국의 지위에서 괄목할 만한 경제대국으로의 변신을 꾀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당시 1차 대전의 전후 처리를 봉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베르사유평화체제는 식민지주의와 제국주의에 대한 정당성을 전면적으로 폐기하는 국제질서를 형성하고 있었다. 즉 베르사유평화체제는 전쟁과 학살을 ‘인류와 문명에 대한 새로운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최초로 ‘반인류범죄’의 명목을 제시했으며, 이에 따라 민족자결원칙과 인종평등법칙을 ‘보편적 표준’으로 표방하고 있었다. 이것은 주권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원리로 기능하면서 세계 각처에서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던 민족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런 점에서 일본과 독일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팽창정책은 세계질서에 대한 위반이자 명백한 ‘국제법상의 불법행위’로 규정되었다.

한편 베트남전쟁을 정점으로 한 1968년 세계혁명운동은 전후체제의 한계와 모순을 한꺼번에 폭발시킨 사건으로서 전후의 세계질서에 적극적으로 항의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첨예한 문제의식을 불러일으켰다. 2차 대전 직후 형성된 미·소 냉전구도는 더 이상 소련의 현실 사회주의가 미국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불러일으켰고, 이런 상황에서 비서구권 국가에서는 민족해방운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해갔다.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 중국의 마오쩌둥, 베트남의 호찌민이 독자적인 민족 독립주의 구도를 형성해가고 있을 때, 소련에 대해 품었던 서유럽 지식인들과 청년들의 좌절감이 이 인물들을 새로운 대안으로 수용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제 과거 노동계급에 대한 사회변혁의 테제는 이제 다수의 자유가 아닌 소수의 자유, 즉 여성, 흑인, 성소수자와 같은 하위집단의 목소리를 가시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미국의 히피운동, 흑인운동, 여성운동과 독일의 학생운동, 녹색운동 등은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집단에 대한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를 예시했다.² ‘68혁명’이 종종 ‘문화혁명’으로 간주되는 것은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The Personal is political)”라는 페미니즘

² 양효실, 『권력에 맞선 상상력, 문화운동 연대기』, 시대의창, 2015, 41-42쪽.

의 매니페스토(Manifesto)가 시사하듯, 그것이 정치적 격변을 초래했다기보다는 이 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 변화, 즉 사적이고 왜소하고 소외된 것들을 향한 새로운 시선과 문제의식을 중심적인 슬로건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전 지구적 저항운동의 새로운 전략으로 기능했다.

베르사유평화체제와 2차 대전, 그리고 냉전과 68혁명으로 이어지는 주요 사건들과 전후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일본과 독일의 전범행위와 책임의 문제는 끊임없는 역사적·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또 지금까지도 시시각각 초점을 달리하면서 인류 차원에서의 과거 극복의 문제를 거듭 상기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평가는 “2차 대전 동안 강제노역과 성노예의 위안부 사건, 교과서 왜곡, 신사참배 강요, 영토 분쟁 등 집단적 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본, 그리고 자기비판과 참회를 통해 “강제노동 희생자들에게 정신적 보상과 물질적 보상을 60년 이상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³는 독일의 태도를 부정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분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이분법적 관점을 채택하게 된 주요 원인은 1970년 12월 7일 서독의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총리재임기간 1969.10-1974.5) 총리가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의 유대인 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던 사건이 큰 몫을 차지한다. 한국인들에게 특별히 감동을 안겨준 이 인상적인 장면은 전후 독일이 뼈아픈 자기반성을 통해 용기 있는 출발을 감행했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기에 충분했다. 반면에 일본은 홀로코스트(Holocaust)와 같은 인륜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세계 유일의 피폭국이라는 사실을 내세우며 피해자 의식을 키워왔을 뿐 침략 국가들에 대한 책임과 배상을 외면해왔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

일본과 독일에 대한 이러한 대립적인 관점은, 일본에 대해서는 ‘15년 전쟁’과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폭 투하에, 그리고 독일에 대해서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행위에 초점을 둬으로써 그것이 일본인과 독일인의 공적 삶과 집단적 기억에 가장 민감한 상흔을 남겼다는 인식에 기초를 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 내재된 평가를 여기서 다시 반복하는 것은 현재적 관점에서 유효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그다지 유익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평가와 시선에서 도외시 되고 있는 문제들에 접근해가는 방법이 지금까지의 관점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 글이 선행 문제의식을 계승하면서 국가와 전쟁과 젠더의 중층성을 기억의 문제로 포착해보고자 한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국가 혹은 민족주의와 젠더 이해의 교차방식을 원용한 연구는 무수히 많다. 민족은 상황적으로 각각 특정한 역사적 순간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 민족을 구성하기 위한 민족주의 담론은 매우 유동적이며 또 그것은 종종 헤게모니 경쟁 속에 있는 상이한 집단의 의도를 통해 촉발되기도 한다. 따라서 그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젠더화의 특징은 오직 그 상황의 맥락 안에서

³ 이미재, 「국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의 화해와 용서: 독일과 일본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東西研究』 제27권 1호, 2015, 30쪽.

만 표현되고 이해될 수 있다.⁴ 일반적으로 여성은 가족의 범위, 즉 사적영역에 속한 존재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회적 영역에서 배제됨으로써 정치성과는 무관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전쟁 상황에서 여성은 국민(nation)보다는 인종(race) 문제와 자주 결부되곤 했다.⁵ 가령 여성의 역할은 미래에 건강한 병사를 생산하는 역할, 그리고 그런 훌륭하고 모범적인 인종을 유지·보존함으로써 그 생명력을 영존시키는 ‘생명의 단지’로 간주되었다. 이런 수동적 희생물로서의 여성의 역할은 당시의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 의해 촉진되고 강화되면서 제국주의적 팽창과 운영에 관여하도록 유도되었다.⁶ 그리고 이러한 역할은 국민화 프로젝트가 작동되는 동안 수동적이고 나약한 여성, 남성의 보조물로 간주되었던 여성을 ‘국민(nation)’으로 승격시키는 중요한 명분이 되었다.

한편 국가 이데올로기를 훌륭히 수행해내는 존재로서의 여성이 필수불가결한 시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전쟁 상황에서의 예술행위를 통한 프로파간다로서의 역할이다. 20세기의 주요 혁명가들은 프로파간다의 효능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잘 알려져 있듯이 독일의 히틀러는 정치에 무관심한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진지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피력하기보다 대중의 감각에 전달된 인상 그 자체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특히 냉전시대의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대중 매체를 양산하고 보급하는 데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대변해준다. 그런 점에서 냉전시대는 그 자체가 프로파간다 전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별히 냉전시대를 상기하지 않더라도 국가는 확실히 프로파간다의 주동자이며, 모든 정부는 최소한 그 국민의 수동적인 목인을 필요로 한다.⁷

1920년대부터 대중에 폭발적인 위력을 떨쳤던 라디오와 영화는 국가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중요한 매체였다. 나치제국의 선전부장 괴벨스가 집권 초기부터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개편함과 동시에 라디오 보급정책에 힘을 쏟았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른바 ‘민족의 수신기(Volksempfänger)’로 통했던 라디오는 정부와 생산자들의 적극적인 공모를 통해 거둬 저렴한 가격으로 각 가정에 보급되었고 그에 따라 청취자의 숫자도 증가했다. 가령 나치 집권 3년 후인 1936년 전 독일의 1/2에 해당되는 가정이 라디오를 소유하게 되었던 만큼, 1932년 416만 명이었던 청취자의 숫자도 1936년 750만, 1938년 910만, 1939년 1200만, 1941년 1600만 명으로 급증해갔다. 이것은 당시 세계 최고의 보급률이었다.⁸ 나치당 제국지도부의 방송부 부장이

⁴ 나라 유발 데이비스 지음, 박혜란 옮김, 『젠더와 민족』, 그린비, 2012, 20쪽.

⁵ ‘여성인 인종의 수호자이며, 가정의 미덕과 도덕의 수호자’와 같은 인식은 독일 제3제국에서 슬로건으로 사용할 정도로 매우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이러한 극단적인 여성상은 국가사회주의적 세계관과 권력 지향적인 정치 목적의 토대 위에서 자생적으로 싹튼 것이나 다름없었다. 안나 마리아 지크문트 지음, 홍은진 옮김, 『히틀러의 여인들』, 청년정신, 2001, 22쪽.

⁶ 박지향, 『제국주의』, 서울대출판부, 2003, 157쪽.

⁷ 니콜라스 잭슨 오쇼네시 지음, 박순석 옮김, 『정치와 프로파간다』, 한울, 2009, 15쪽.

⁸ 이경분, 「음악, 라디오 그리고 프로파간다: 독일 나치제국의 방송음악정책에 관하여」, 『탈경계인문학』 제2권 1호, 2009, 114-115쪽.

자 제국방송협회 회장이었던 드레슬러 안드레스(Horst Dreßler-Andreß)에 따르면, 당시 독일에서 라디오는 “세계관을 선포하는 창구”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라디오 방송 청취는 독일 국민이 수행해야 할 국가적 임무에 해당되었으며, 음식점이나 회사는 히틀러의 연설과 같은 주요 방송을 일반에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⁹

일본 역시 1940년 ‘내각정보국’을 설치하여 출판물과 연극 이외에 라디오와 영화를 포함한 매스미디어의 종합적 통제를 새로운 목표로 채택하고 그것을 전쟁 수행에 이용하는 방침을 취했다.¹⁰ 즉 일본 정부는 ‘내각정보국’을 중심으로 국민에 대한 사상·언론 통제를 강화했고, 신문, 방송, 잡지, 출판물 역시 시국적 색채가 농후한 것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제국 일본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일본문학보국회’, ‘대일본언론보국회’ 등에 속한 다수의 문화인과 언론인들은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한 사상전에 동원되었다.¹¹ 요컨대 프로파간다의 일본과 독일 제국주의가 갖추어야 할 주요 선행 요건에 해당했다.

특히 전쟁, 혁명,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갈등, 소비사회의 등장에서 프로파간다의 역할은 의심의 여지없이 중요하다. 전쟁과 혁명은 자극적인 프로파간다의 역할이 없다면 생각할 수조차 없다. 그것은 대중의 정서와 열광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쟁과 혁명은 대중에 어필되는 타당한 이유들을 갖추고 적(敵)이나 지도자 그리고 희망이라는 요소들과 결합할 때 대중의 감정과 인상에 효과적으로 전달된다.¹² 프로파간다가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거론되어야 할 문제는 그것이 당시의 시점에서는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프로파간다의 진정한 힘은 자신을 은밀히 감추면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그 사회의 가치체계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권력의 상징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것,¹³ 바로 그러한 점이 여기서 주목하는 프로파간다의 주요한 성격이다.

3. 일본 제국주의의 경우: 최승희와 리상란¹⁴

제국 일본에서 ‘반도의 무희’, ‘조선의 이사도라 던컨’으로 소개되곤 했던 최승희는 명백히 조선인이다. 그러나 ‘제국의 무희’ 혹은 ‘대동아의 무희’로 호명되었을 때 최승희는 명백히 일본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실제로 최승희는 도쿄에서 14년, 중국에서 4년, 그리고 약 3년

⁹ 슈테판 마르크스 지음, 신종훈 옮김, 『나치즘, 열광과 도취의 심리학』, 책세상, 2009, 113쪽.

¹⁰ 五味文彦·高埜利彦 外 12人, 『解説日本史 B』, 山川, 2014, 357쪽.

¹¹ 鳥海靖·三谷博·渡邊昭夫, 『現代の日本史 A』, 山川, 2014, 130쪽.

¹² 니콜라스 잭슨 오쇼네시 지음, 박순석 옮김, 앞의 책, 362쪽.

¹³ 니콜라스 잭슨 오쇼네시 지음, 박순석 옮김, 앞의 책, 13쪽.

¹⁴ 최승희와 리상란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혜진, 「전전-전후 내셔널리즘의 변용: 리상란과 최승희의 경우」, 『국제어문』 제67권, 2015; 이혜진, 「전후-해방정신의 계류점: 리상란과 최승희의 재신화화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와 예술』 제18집, 2016. 참조.

간의 미국·유럽·중남미 순회공연을 통해 제국 일본의 ‘대동아전쟁’에 대한 선전·홍보에 복무했고, 해방 직후인 1946년 7월 20일 남편 안막(安漠)을 따라 월북한 이후에는 북한 정치체제에 대한 선전 능력을 인정받아 북한 예술인 최고의 영예인 ‘인민배우’가 되었다.

또한 ‘만영(滿映)의 전설적 간판스타’ 리상란은 원래 야마구치 요시코(山口淑子)라는 일본인이었지만, 만주에서 태어나 뛰어난 중국어 실력과 빼어난 재능을 겸비한 탓에 제국 일본의 국책영화에서 ‘민족협화’라는 만주국 이미지를 구축해간 ‘대동아의 스타’로 군림했다. 그러나 야마구치 요시코(본명), 판슈화(潘淑華), 리상란(중국), 리코란(일본), 이홍란(홍콩), 이향란(조선), 셸리 야마구치(Shirley Yamaguchi, 미국)라는 다양한 호칭에서 볼 수 있듯이, 그녀는 국가로부터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박탈당한 채 ‘만주영화협회’의 상업자본과 괴뢰국 만주의 국가권력이 공모해낸 창조물로 살아갔다. 그러나 패전 후 ‘한간(漢奸)’ 혐의로 중국의 전범재판에 회부되었다 극적으로 구조된 뒤 일본에 돌아와 자신의 과거를 공개적으로 참회했다. 1974년 일본자민당(日本自由民主黨) 참의원 3선에 당선된 이후 일본군 위안부와 전쟁고아들을 위해 일하고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靖国神社) 참배를 반대하는 등 평화국가를 구축해가는 과정에서 전후 일본 이데올로기를 모범적으로 실천함과 동시에 구 식민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음에도 그의 과거 이력은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곤 했다.

최승희와 리상란은 중일전쟁과 아시아-태평양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제국 일본 최고의 프로 파간다를 수행하면서 조선, 중국, 대만, 만주를 포함한 제국 일본의 팬덤(fandom)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패전은 ‘대동아’ 최고의 은막 스타들을 단번에 ‘친일’과 ‘한간’으로 내몰았다.¹⁵ 그런 탓에 최승희는 남한에도 일본에도 정착할 수 없었고, 또 리상란은 중국에도 일본에도 정착할 수 없었다. 결국 북한으로 간 최승희는 북한 체제 선전에 헌신적으로 복무함으로써 재기에 성공했고, 리상란은 일본인으로 회귀하고 자신의 오점을 공식적으로 참회했음에도 오랫동안 재기하지 못하다 1974년 자민당 참의원 당선 후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민주주의를 모범적으로 실천해가면서 그의 참회가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전쟁책임을 봉인하고 ‘평화국가’로 변신한 전후 일본의 국가 이데올로기를 수행하는 데 기여한 셈이 되어버렸다. 전후 일본에게 ‘평화국가’란 앞으로 일본은 어떤 형태의 전쟁 가담을 자발적으로 포기한다는 사실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그것이 미국의 군사적 위압의 의한 강요라는 사실을 은폐함과 동시에 식민지·점령지 국가에 대한 전쟁책임을 ‘평화’라는 보편성의 형식을 빌려 봉인해 버리려는 태도와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일본의 전공투 세대가 전후 일본의 자기기만성을 폭로하고 거기에 항거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최승희와 리상란의 정체성을 둘러싼 문제적 사안들은 친일이나 젠더의 범위에

¹⁵ 1945년 8월 최승희는 베이징에서, 리상란은 상하이에서 각각 일본의 패전을 맞았다. 리상란은 중국의 ‘3대 여성 매국노’로서 ‘문화 한간’과 ‘일본 스파이’라는 혐의로 수용소에 보내졌다. 당시 중국인들은 리상란을 사형에 처하라고 격렬하게 투서했고, 실제로 “리상란은 12월 8일 오후 3시, 상하이 국제경마장에서 총살형에 처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가 신문에 실리기도 했다. 이혜진, 「전전-전후 내셔널리즘의 변용: 리상란과 최승희의 경우」, 『국제어문』 제67권, 2015, 29쪽.

한정해서 논의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¹⁶ 조선, 만주, 대만, 중국 등지에서 개최된 수백 차례의 ‘전선위문공연’은 제국 일본의 군기관이 주최하고 후원했기에 가능한 것이었고, 따라서 이들의 공연수익금은 일본군의 운영자금, 즉 침략전쟁을 수행하는 데 활용되었다. ‘무용보국(舞踊報國)’을 위해 ‘대정익찬회(大政翼賛會)’에 가입하여 국방헌금을 내고 전쟁의 한가운데서 황군(皇軍) 위문공연을 개최했던 최승희가 공연수익금의 일부를 국방기금으로 투척했던 이력¹⁷ 등은 최승희의 친일행적에서 항상 주요하게 거론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한국전쟁 시기에 북한에서 발표한 <조선의 어머니>, <여성유격대원> 등의 무용작품과 <사도성이야기>, <해녀이야기>, <맑은 하늘 아래서>와 같은 극무용 등은 조선 민족의 독립과 사회주의 해방을 위해 싸우는 조선 인민의 투쟁정신을 그린 작품으로써,¹⁸ 이러한 창작행위 역시 북한 사회주의 정치체제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만 가능한 일이었다. 중국과 동유럽에서의 무용순회공연 역시 사회주의 혁명정신을 선전·보급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주요 명분을 이루었으며, 그 결과 최승희는 1955년 북한 최고의 예술가 칭호인 ‘인민배우’로 등극할 수 있었다.¹⁹ 요컨대 최승희가 북한에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주제가 진하게 배어 나오는 작품 창작에 주력”²⁰한 민족극무용, 무용서사시, 무용조곡, 군무와 같은 국가 이데올로기의 프로파간다를 성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 작품들은 한결같이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꿈과 희망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김일성이 크게 환영했다는 후일담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전쟁과 혁명에 필수적인 최고의 지도자에 대한 찬양과 숭배가 미래를 향한 희망과 결합되는 프로파간다의 전형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 준다.

한편 ‘오족협화(五族協和)를 위한 중국 소녀’에서 ‘일만친선(日滿親善)의 아이돌’로, 다시 ‘대동아공영권의 아이돌’로 스펙터클하게 이미지 변모를 꾀해갔던 리상란은 ‘대륙 3부작’²¹이 개

¹⁶ 이런 점에서 일제 시기와 월북 이후를 구분하지 않은 채 최승희의 무용예술을 ‘조선적인 것’을 표방한 민족주의적 사상으로 일괄 평가한 많은 선행 연구들은 최승희라는 인물의 전 역사를 조망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

¹⁷ 「최승희 여사의 선물, 문협에 2천 원 기탁」, 『매일신보』, 1941. 4. 9.; 「최승희 여사 2천 원 헌금」, 『매일신보』, 1941. 4. 28.

¹⁸ 최승희, 「노동당시대에 찬란히 꽃핀 무용예술」, 『조선예술』 1965년 10월호, 25쪽.

¹⁹ 최승희는 1951년 ‘국기훈장 제2급’과 ‘노력훈장’을, 1952년에는 ‘공훈배우’ 칭호를 받았다. 1955년 ‘인민배우’ 칭호를 받았고, 1957년 ‘국기훈장 제1급’을 받으면서 북한 예술계에서 성공을 보장받았다. 김채원, 『최승희의 춤: 계승과 변용』, 민속원, 2008, 134쪽.

²⁰ 최승희, 「인민의 애국투쟁을 반영한 우리나라 무용예술」, 『조선예술』 1966년 11월호, 25쪽.

²¹ ‘대륙 3부작’이란 중국 대륙을 배경으로 당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하세가와 가즈오(長谷川一夫, 1908-1987)와 리상란이 커플이 되어 촬영한 세 편의 ‘만영(滿映)’ 영화, <白蘭の歌>(1939), <支那の夜>(1940), <熱砂の誓い>(1940)를 통칭하여 이른다. 대륙의 줄거리는 일본인 남성과 중국인(만주) 여성이 민족과 국경을 초월하여 진정한 사랑을 이룬다는 공통된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대표적인 ‘일만친선’ 국책영화이다. ‘만영’의 전성기에 제작된 이 ‘대륙 3부작’에서 리상란은 중국인 처녀 역할을 맡아 스타덤에 올랐고, 이후 일본, 조선, 대만에서 개봉되면서

봉될 무렵 ‘리상란 봄’을 최고도로 이끌면서 중국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었다. 특히 <支那の夜>(1940)에서 중국 여성 역을 맡은 리상란이 일본 남성에서 빵을 맞는 장면은 곧바로 중국인들의 자긍심을 훼손한 문제적 사건으로 치부되었다. 당시 중국인의 민족적 자긍심이 투사된 독보적인 존재였던 리상란은 다시는 그런 국욕영화(國辱映畫)에 출현하지 않겠다고 공개사죄 함으로써 그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 이 사건은 제국 일본의 국가 이데올로기 선전에 복무했던 리상란이 오히려 중국인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지켜내야만 했던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즉 리상란은 개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대변하고 있었던 것이다. 1941년 리상란이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중국인들의 이러한 민족적 심성은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대목이다.

그러나 일본의 패전은 리상란의 지위를 정반대로 바꾸어 놓았다. 일본에 협력한 중국인들을 재판에 회부하고 매국노로 처형한다는 중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리상란은 1945년 9월 ‘문화 한간’과 ‘일본 스파이’라는 혐의로 상하이의 일본인 수용소에 수감된 것이다. 이때 중국인들은 리상란을 사형에 처하라고 격렬하게 투서했다. 결국 리상란은 우여곡절 끝에 아무도 모르게 일본인 귀환자의 무리에 섞여 일본으로 귀국하여 야마구치 요시코로 회귀했지만, 일본인들은 그가 ‘대동아전쟁’을 위한 프로파간다였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비난했고 과거 그에게 열광했던 수많은 팬들은 일제히 침묵을 지켰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인간 사회의 근원적인 결함을 목도할 수 있다. 하나는 국가의 폭력적인 지배방식에 대한 결함이고, 다른 하나는 내셔널리즘의 외피를 입은 인간 근원의 도덕적 결함이다. 국가 권력의 토대가 군대와 경찰로 대표되는 물리적 폭력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잔인한 형태의 지배방식은 국가의 목적을 위해 국민을 수단으로 동원하는 것이다. 거기에는 객관적 진실을 레토릭으로 사용하면서 정교하고 교묘한 조작이 수반된다. 그리고 그것이 효능을 다했다고 판단되면 냉정하게 외면하고 뒤돌아서 가버리는 것, 국가의 지배방식은 늘 개인에게 잔인했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또한 민족적 통일성을 조장하는 그 모든 형태는 일반적으로 근대적 타락에 대한 대항으로 간주되지만, 실질적으로 ‘민족적 사유’는 사회주의, 물질주의, 코스모폴리타니즘, 국제주의 등과 같은 모든 급진주의적 방식으로도 결코 잠식되지 않는 신비로운 본질을 부여받고 있다.²² 언어와 역사와 지리와 혈통을 공유하는 민족의 심성은 국가를 작동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왔지만, 그것이 단지 국가의 영속과 목적을 위한 수단만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여전히 문제적이다. 리상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제국 일본과 점령지 중국의 정치적 우위를 결정하게 된 중요한 실마리는 전쟁과 해방을 매개로 한 내셔널리즘이었다. 전후 일본이 리상란을 ‘일본인’으로 받아들인 가장 큰 이유 역시 과거 전쟁을 함께 겪었다는 역사에 대한 집단기억, 즉 ‘회한의 공동체’를 매개로 한 민족주의적 심성이었다. 식민지 시기는 물론 월북 시기까지 최승희의 무용예술의

‘흥아(興亞) 스타’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이해진, 「전전-전후 내셔널리즘의 변용: 리상란과 최승희의 경우」, 『국제어문』 제67권, 2015, 18쪽.

²² 마크 네오클레우스 지음, 정준영 옮김, 『파시즘』, 이후, 2002, 74-75쪽.

가치를 ‘조선적인 것’ 또는 ‘민족의식’을 반영한 민족주의적 심성에서 찾고 있는 오늘날의 관점들 역시 이러한 감성과 거리가 멀지 않다.

특정한 과거의 기억이 현재적 맥락에서 하나의 공유된 인식을 형성하면서 전승될 때 그것은 이미 과거에 대한 기억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곧 그 사회가 요구하는 현재적 요청의 투영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그 기억을 생산하는 주체는 국가권력이고 또 그것을 소비하는 것은 시민사회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것은 국가 권력이 추구하는 강제라기보다는 권력의 욕망은 은폐한 채 사회적 합의의 형태로 공동체의 집합기억을 형성하고 점진적으로 확산해가는 방식이 보다 일반적이다.²³ 전전의 내셔널리즘과 현재의 국민국가 이데올로기가 현재의 존재방식보다 훨씬 더 개방된 존재로 변혁되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바로 그럴 때야말로 사상에 게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것이다.

4. 독일 제국주의의 경우: 레니 리펜슈탈과 마를레네 디트리히

영화사상 가장 뛰어난 기록영화 감독으로 평가되는 레니 리펜슈탈은 영화배우와 감독으로 대 성공을 거둔 후 히틀러 나치정권하에서 문화담당 특별보조관을 역임함으로써 나치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패전 후 투옥과 석방을 거듭하다 1960년대에 복권되면서 사진작가로 변신하여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살았다. 그는 제3제국 시절 히틀러의 절대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총통에 대한 숭배와 나치 이데올로기를 훌륭히 시각적 영상물로 재현한 최고의 기수였다는 이유로 ‘히틀러의 카메라 눈’, ‘나치의 핀업 걸’, ‘나치의 여신’ 등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독일이 패전한 후에도 ‘나치의 마녀’와 ‘영화 천재’라는 평가를 동시에 받으며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예술가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레니의 기록영화에서 보이는 특수효과와 촬영기법은 혁신적인 효과를 발휘하면서 수많은 다큐멘터리의 고정 수법으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세간의 평가는 지금도 양극단의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마를레네 디트리히는 원래 독일인이었지만 히틀러의 제3제국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 미국시민권을 취득한(1939) 후 연합군을 위한 무대 위에서 노래하고 연기하면서 영원한 병사들의 연인이 되었다. 독일 영화 <모로코(Moroco)>(1930)를 통해 유명해진 남성적 포멀 매니시 슈트(formal mannish suit) 차림은 오늘날까지 디트리히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다. 그의 차갑고 독특한 도시적 분위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당대 여성들의 패션과 화장기법을 선도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으며, 이른바 백만 불짜리 각선미와 치명적 매력을 지닌 팜므 파탈(Femme fatale)의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1930-1940년대 할리우드의 섹시 심벌로서의 영향력을 떨쳤다. 특히 그가 노래한 <릴리 마를린(Lili Marleen)>²⁴은 2차 대전의 격돌 속에서 독일군

²³ 임지현, 「식민주의적 죄의식을 넘어서」, 『기억과 역사의 투쟁』, 삼인, 2002, 10쪽.

²⁴ 이 곡은 원래 1차 대전 중인 1915년 20대 초반의 시인 한스 라입(Hans Leip)이 러시아 전선으로 떠나면서 썼던 시에서 유래되었다. 1937년 발간한 그의 시집에 실려 있던 이 시를 당시 최고의 작곡가였던 노베르트 술체(Norbert

과 연합군 모두에게 최고의 사랑을 받았고 이후 반전가요의 대명사가 되기도 했다. 은막에서 은퇴한 이후 파리 근교에서 살다 독일에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1992년 파리에서 사망했지만 그는 항상 자신의 조국이 독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훗날 독일에서는 ‘조국을 등진 배신자’라는 낙인을 지우고 화해와 용서의 표시로 디트리히를 독일명예시민으로 추서하고 또 독일에 ‘마를레네 디트리히 광장’을 조성함으로써 과거 극복을 위한 노력을 실천한 바 있다.

이렇듯 이 제국 은막의 여성들은 자신의 특별한 재능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면서 제국 프로파간다의 대명사가 되었다는 점에서 훗날 가혹한 평가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이들에게 본원적으로 주어졌던 국적을 적용했을 때, 즉 국민국가의 내셔널 히스토리(national history)의 서술에 한정되었을 경우에만 타당하다. 왜냐하면 이들은 명백히 전쟁으로 인해 자신의 국가적 정체성을 박탈당한 채 일정 정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국적·다문화적 정체성을 전유해버린 우연에 지배당한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가령 레니 리펜슈탈은 독일 제국주의를 위해 헌신적으로 복무했지만 나치당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탁월한 자기변호를 통해 나치 이데올로기를 찬양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남으로써 훗날 명예를 회복할 수 있었다. 독일이 패전한 후 나치특별재판소에 회부된 레니는 1948년에 이르러 ‘주모자’가 아닌 ‘단순 가담자’로 분류되었던 것이다.²⁵ 패전 이후 레니는 영화감독으로서의 재기를 모색하고 또 오랫동안 아프리카 수단(Sudan) 남부에 사는 누바(Nuba) 부족의 생활 모습과 수중 세계를 기록하는 사진작가로 활동하면서 탁월한 재능과 능력을 승인받았음에도 현재까지 레니에 대한 이미지와 평가는 여전히 나치의 대표적인 여성 프로파간다였다는 사실에 한정되어 있다.

잘 알려져 있는 사실처럼 히틀러 우상화를 위한 뉘른베르크 전당대회(1934.9.4.-10.)를 기록한 <의지의 승리>(1934)와 제11회 베를린 올림픽(1936.8.1.-16.) 경기를 촬영한 <올림피아>(1936)는 다큐멘터리 영화사상 최고의 반열에 올라있다. 현재까지 <의지의 승리>는 ‘시대를 초월한 최고의 선전영화’로 각광 받고 있고,²⁶ 또 <올림피아>는 세계 10대 영화에 선정되어 있

Schultze)가 곡을 붙여 만든 것이 바로 <릴리 마를린>이다. 김재희, 「디트리히, 이 나쁜 년!」, 『한겨레 21』 제564호, 2005. 6. 16.

²⁵ 1945년 5월 30일 미군 제7부대 심문소의 조서에는 당시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던 레니 리펜슈탈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올림픽 경기를 줌, 패기, 미의 상징으로 여겼을 뿐이라고 진술한 그녀는 어떤 지령도 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녀는 이 작업에 동참한 것이 전적으로 본인의 뜻이었다고 말했다. 영화는 검열되지 않았고, 인종이나 국가도 강조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한 미국의 흑인들도 적절히 존중되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흑인 육상선수 제시 오웬스는 다큐멘터리 사진책에서 어떤 선수보다도 부각되었다고 말했다. (중략)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자신의 예술 활동이 잔악한 정권을 선전하고 정권 찬양에 일조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으며 지금까지도 진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안나 마리아 지크문트 지움, 흥은선 옮김, 앞의 책, 274-275쪽.

²⁶ 장엄한 행진곡 풍의 서곡으로 시작되는 <의지의 승리>의 도입부에 명시된 자막은 히틀러의 명령에 의해 제작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그 의도는 1차 대전에 패한 독일이 히틀러의 영도력으로 열패감을 극복하고 평화와 희

는 만큼 27 레니의 다큐멘터리를 분석한 해외의 박사논문은 100여 편을 훌쩍 뛰어넘고 있으며 심지어 그를 전설적인 불굴의 여성운동가로 칭송한 평가도 존재한다. 이렇게 볼 때 그의 다큐멘터리 영화작업은 또 어떤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 역시 내셔널리즘이나 젠더의 문제에 한정해서 논의하는 것은 매우 협소한 조망이라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오드리 설킬드(Audrey Salkeld) 다음과 같은 서술은 <의지의 승리>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데 따르는 곤란함을 잘 보여준다.

그리피스(D.W.Griffith)의 자극적인 영화 「국가의 탄생」을 제외한다면 영화사에서 「의지의 승리」만큼 오랫동안 논란을 일으킨 영화는 없었다. 우리는 「의지의 승리」를 그 이후에 나치가 저지른 만행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영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감정적이 될 수밖에 없다. 또 이 영화는 본래 감정과 감각에 호소하도록 만들어진 감정적인 영화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평가를 요구하는 것은 이성적인 평가를 받는 것만큼이나 어렵다.²⁸

이에 비해 베를린에서 출생했으나 할리우드에서 명성을 떨친 여배우 마를레네 디트리히는 조국인 독일을 등지고 미국시민권을 취득(1939)함으로써 2차 대전 중 연합군을 위한 위문공연을 통해 국방기금을 마련하고 연합군 병사의 사기를 진작시켰다는 이유에서 패전 독일 국민에게는 반역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지만 결국 나치를 거부했다는 점에서 훗날 우호적인 평가로 선회했다.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디트리히는 USO(전선군인위문기관)의 일원이 되어 유럽 각지에서 미군을 위한 위문공연을 하면서 자신의 반나치주의적 태도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디트리히의 공로는 미국 시민 최고의 영예로 간주되는 ‘대통령 자유훈장’(1947)으로 보상되었고, 또 프랑스 정부는 그에게 ‘프랑스영예군단훈장’(1950)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렇게 볼 때 디트리히는 나치 독일 국가의 이념을 저버리는 대신 연합군의 전쟁 프로파간다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즉 나치 독일을 거부한 디트리히에 대한 후대의 우호적인 평가에는 그가 냉전시기 미국 할리우드의 섹시 심벌이 되어 자유 민주주의의 이상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

망을 통해 새롭게 부활하는 독일 제3제국의 이념을 선전하는 데 있었다. “의지의 승리 / 1934년 제국 전당대회 다큐멘터리 / 총통의 감독과 감찰 하에 제작 / 감독: 레니 리펜슈탈 / 1934년 9월 5일, 세계대전이 발발한지 20년, 독일의 고난이 시작된 지 16년, 독일의 부활이 시작된 지 19개월, 아돌프 히틀러는 그의 충성스런 지지자들을 분기시키기 위해 또다시 뉘른베르크로 향했다.”

²⁷ 해상촬영, 공중촬영, 크레인촬영 분야 최고의 전문가 약 40여 명으로 구성되었던 <올림피아>의 크레디트는 당시 가장 유명했던 카메라 예술가들의 명단 그 자체와 다름없었다. 총 40만 미터에 달했던 촬영필름은 만 2년의 편집 기간을 거쳐 총 6천 미터에 이르는 2부작의 기록영화로 완성되었다. 따라서 1936년에 촬영을 시작한 <올림피아>는 1938년 4월 20일 히틀러의 49세 생일을 축하하는 행사 때 상영되었다. 오드리 설킬리 지음, 허진 율김, 『레니 리펜슈탈: 금지된 열정』, 마티, 2006, 346쪽; 니콜라우스 슈뢰더 지음, 남완석 율김, 『영화: 세계 영화사의 별들, 잊지 못할 명작 50』, 해냄, 2003, 74쪽.

²⁸ 오드리 설킬리 지음, 허진 율김, 앞의 책, 265쪽.

의 프로파간다를 수행했다는 사실은 도외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가 히틀러의 후원을 저버리고 나치 제국의 이념을 거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2차 대전의 상황에서 연합군을 위한 프로파간다를 수행했던 행위 그 자체는 최승희와 리상란의 경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치 제국을 둘러싼 레니 리펜슈탈과 마를레네 디트리히의 상반된 행보에서 과연 우리는 사실판단과 윤리판단의 측면에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이 문제에는 국가 이데올로기가 승인한 문화권력 속에 놓인 젠더로서의 한 개인의 딜레마, 그리고 양차 대전을 전후로한 세계 공간의 소비대중사회의 상업자본의 문제, 그리고 소비 대중의 공통감각과 시시각각 새롭게 공유되는 역사적 집단기억, 다문화주의, 아이덴티티, 과거사 극복의 문제 등 처치 곤란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중층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곤란함을 타개해보기 위한 일환으로서 오누키 에미코(大貫惠美子)는 정치적 내셔널리즘과 문화적 내셔널리즘으로 나누어 각각의 문제 영역을 분류해서 조망했던 바 있다.²⁹ 하지만 어떤 담론적 사유나 집단적 감각을 정립하는 것은 그 자체의 내용이 아니라 그 이데올로기의 맥락을 구성해내는 심성, 의례, 표상, 경험 혹은 전쟁이나 관습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경유해서 형성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정치와 문화는 구별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대 국민국가에서 그 두 가지를 완벽하게 구별해낼 방법도 없다. 더욱이 리상란이 야마구치 요시코로 회귀하면서 자기 자신과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에 대한 참회의 차원에서 구 식민지 문제 해결에 전념했을 때 그것이 곧바로 전후 일본 국가의 평화주의 이념을 실천하는 것으로 전이되었던 것처럼, 전후 독일이 마를레네 디트리히를 용서하려 했던 노력은 홀로코스트라는 과거 자신들의 악령과 화해함으로써 전후 독일의 평화주의를 실현해보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했다. 즉 이들의 행위는 결국 문화의 외피를 입고 국가가 목표로 한 방향을 실현하는 사회적 행위자(actor) 또는 주체(agent)의 현현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흘러도 조국의 반역자를 용서하고 진정한 화해의 악수를 건네는 일이란 독일인들에게도 그리 녹록한 일은 아니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안 부르마(Ian Buruma)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과거에 대해 반성하는 독일과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라는 세간의 평가와 달리 독일인들 역시 역사적 과오를 참회하기 위해 조국의 반역자와 화해함으로써 진정으로 과거를 극복해가는 과정이 여전히 힘겨운 일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마를레네 디트리히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파괴된 베를린의 유대적 세계의 일부였다. 1992년 그녀가 죽었을 때 베를린에서 간소한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한 독일인들은 거의 모두 40세 이하였다. 이것은 이 여배우를 위해 공식적인 장례행사를 개최하기를 거부한 시 관리의 소심한 결정과 대조를 이루었다. 상당수의 독일인들은 독일의 도시들이 폭격을 당할 때 디트리히가 미군 제복을 입고 연합군 위문공연을 다닌 것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지만, 장례식에 참석한 젊은이들에게는 그녀가 그들이 동일시하고 싶어 하는 다른 독일의 대변자였다.³⁰

²⁹ 오오누키 에미코 지음, 이향철 옮김, 『사쿠라가 지다 젊음도 지다』, 모멘토, 2004, 412쪽.

³⁰ 이안 부르마 지음 정용환 옮김, 『아우슈비츠와 히로시마』, 한겨레신문사, 2002, 332쪽.

5. 망각의 정치와 기억의 아나크로니즘(Anachronism)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가 말했듯이 과거에 대한 연구는 현재를 해석하는 데 가장 보편적인 전략 중의 하나다. 과거에 대한 연구를 생동감 있게 해주는 것은 비단 과거가 무엇이었는지 또는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의견의 불일치뿐만 아니라 그 과거가 정말로 끝났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지에 대해 불확실한 감정이 남아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있다.³¹ 그러한 탓에 불확실한 문제영역이 현재까지 남아 있는 과거에 대한 연구는 늘 현재적인 의의를 갖는다. 양차 세계 대전과 냉전시대를 경유하는 동안 이 네 인물들에 대한 대중의 히스테릭한 반응과 평가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러한 후대의 평가를 견인한 국가 이데올로기와 거기에 기반을 둔 문화권력이 얼마나 자의적이며 또 연약한 기반 위에 성립되었는가를 확인케 해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그 만큼 20세기 초중반에 걸쳐 형성된 국제관계와 거기에 기반한 신뢰란 단지 레토릭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연약한 기반을 봉인해 주는 것이 바로 프로파간다다. 사실 프로파간다는 어디에나 존재한다. 전체주의의 지배 하에서 선전선동이 충만한 것은 명백해 보이지만 민주주의에서 그것은 좀 더 은밀하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객관적인 대중 매체의 일부가 되어 좀 더 정교하고 자연스러워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현상에 대해 부를 이름이 없으면 그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까닭에 뒤에 숨어있는 무수한 종류의 현대의 프로파간다는 자주 무시된다. 그러한 프로파간다들은 그저 객관적인 특성들을 통해 정의 내려질 것이다. 예를 들면 ‘홍보’라는 이름이 주어질 수 있다. 프로파간다 매체의 넓은 폭도 충분히 인식되어야 한다.³² 프로파간다는 단순한 의사 전달이 아니라 군중을 대상으로 한 ‘대중 암시’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듯이 현재의 우리는 제국이나 제국주의적 맥락을 무시할 수 없는 시점에 도달해 있다. 19세기를 관통한 제국주의적 지배방식은 21세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즉 전자통신, 세계시장무역, 자원 보유, 여행, 기상도, 생태학적 변화 등에 대한 정보의 세계화는 전 지구를 연결해 주었다. 이러한 패턴의 시작은 근대 제국에서 처음 시작된 것이다.³³ 국가와 자본을 희생해서라도 글로벌한 경쟁에 광분한다는 점에서 1990년대 이후의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가 19세기 제국주의의 우승열패·적자생존과 같은 사회다위니즘의 재판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이 현재의 사태를 자유주의보다는 제국주의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조언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³⁴ 그러므로 현재의 시점

³¹ 에드워드 사이드 지음, 김성곤·정정호 옮김, 『문화와 제국주의』, 도서출판 창, 2002, 47쪽.

³² 니콜라스 잭슨 오쇼네시 지음, 박순석 옮김, 앞의 책, 364쪽.

³³ 에드워드 사이드 지음, 김성곤·정정호 옮김, 앞의 책, 50-51쪽.

³⁴ 가라타니 고진 지음, 조영일 옮김, 『역사와 반복』, 도서출판b, 2008, 14쪽.

에서 우리는 과거에 대한 망각과 부정을 거부하고 거기에 대항하면서 역사를 직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교류하며 연대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들은 모든 종류의 신화화와 종교화를 거부하고 역사적 진실과 대면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일본과 독일 제국주의를 횡단하는 기억은 매우 유동적으로 변화해간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 특정 사례의 특성을 교차시킨 것이다. 개별 국민국가의 내셔널 히스토리를 횡단하는 작업은 그들 사이에서 보이는 상관성을 밝히는 일이다. 이러한 작업이 보여준 통찰력은 하나의 내셔널 히스토리를 살펴보는 작업이란 다양한 국민국가에서 보이는 논의를 참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유효한 내용을 조망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 글이 일본과 독일 제국주의를 문제의 소재로 삼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본의는 제국주의를 둘러싼 문제 상황에 관계된 모든 국가 이데올로기의 현현 방식을 검토해보는 데 있다. 제국주의가 재현했던 다양한 경험적 지식은 내셔널 히스토리에 대한 구체적인 통찰력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현재의 시점에서 제국주의에서 발견되는 문제가 끊임없이 호출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